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58 호 현대불교  
2007년 12월 19일(음력 11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 19

##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런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몸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람이 뭐기에,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기에,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기에 그렇게들 인연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붙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니까?

그러니 사람사람이 누구나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化身)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普賢菩薩)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化)해서 지속 왕래를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만 만날 필요 "아이구,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씀니까?

나는 이날까지 나 살려달라고 빌어본 예가 없어. 항상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대만 쥐고 다녔고.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 없어.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랄 게 없지.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그 대만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도 약과 선을 다 놓을 수 있다면, 또는 집안에서 병 문제가 생겼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었고저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지금 간암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병원이냐고, 의사가 있는냐고 그러니까, "지난번 여섯 달 전에도 우린 그렇게 해서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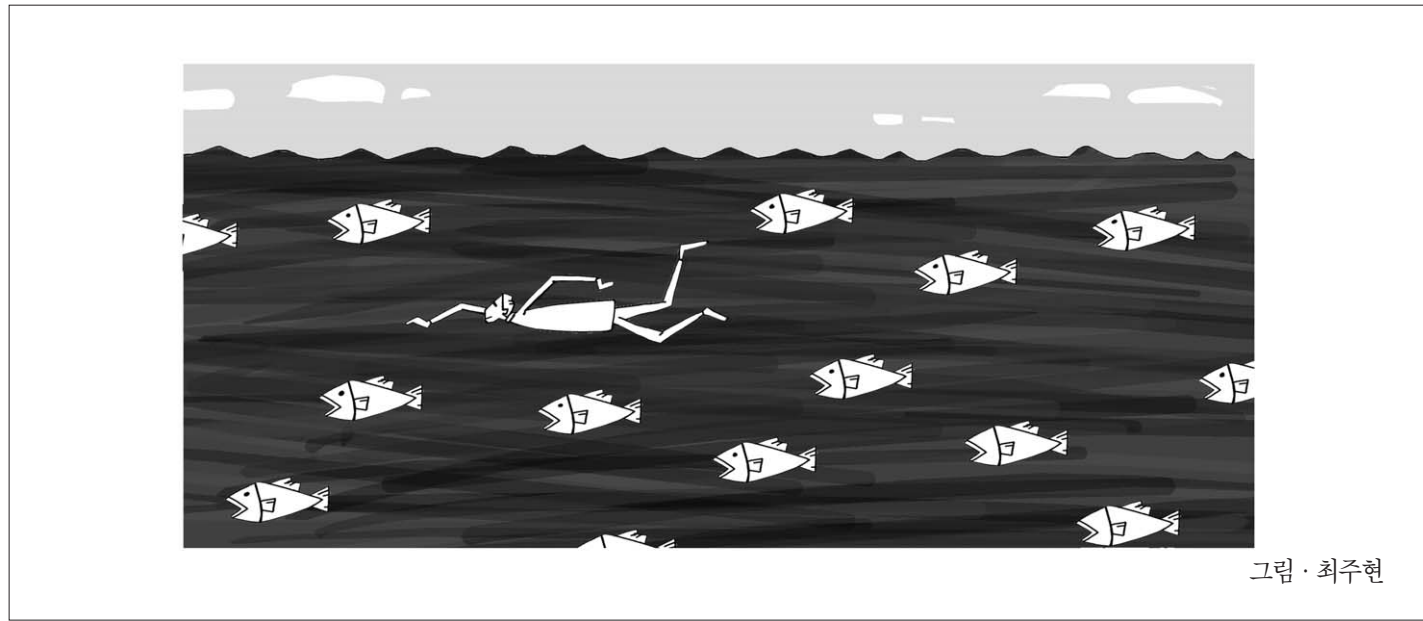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더니, 난 모르는 일인데 '아휴, 나야이지, 자식들이 어린데 나야이지.' 했어요. 글썄. 그랬더니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문제라고요. 나한테 물어서 되는 줄 아니 이걸 어렵하면 좋았어요? 물론 '나무때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지.'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내가 수 해를 그렇게 원주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병만 고쳐주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 병이 나았으니까 잘살겠지만 영원토록 끊임없는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은 그 업보를 스스로 녹이지 않는다면 형식 그런 게 막쳐오니까 말이에요. 잠시 잠깐 그렇게 해줬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런 소리도 듣기 싫다고. 여러분을 이끌어 여러분이 진짜로 어딜 가나, 하다못해 돼지 새끼, 벌레 새끼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누가 나를 믿으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예가 없어요. 자기 주인공 즉, 자기를 믿으라고 했지. 그저 생각이 없는 짐승이나 생각이 있는 짐승이나, 생각이 없는 영계나 생각이 있는 영계나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영령들, 그 애처롭고 참혹한 우리 산 놈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이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영, 혼, 넋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거는 업식으로서 많이 살면 숨이 한데 뭉쳐진 그 덩어리라. 어떠한 업식이야. 그 업식이 영령들이야, 그게 다. 그러니 중생이라 이 소리지.

그 참혹한 꼴을 보세요. 내용적인 것은 다 말을 못 하지만 그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생(四生)의 종류, 또 용도대로 그러한 문제가 덩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사람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갖추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가, 저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업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이라면 이다음에 죽어서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보장을 누가 하며, 또는 사람 속에서 업식이 뭉쳐진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자체가 바로 중생들의 소굴이거든. 여기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참인데 사람도 못 된다면 부처 될 일은 까마득하지 않느냐 이거야. 부처의 뜻을 알려면, 그러니 누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선 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벌써 스님과 침보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님하고만 침보되는 게 아닙니다. 저 은하계의 별성들이 다 침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 응, 한마음이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고 조그맣게 쓰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지각을 가지고서 좀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이량, 지혜, 자비를 가지고 넓게 포용하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할 말 되라고 한 말 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에도 있지만,

몇백 년 전에, 아니 삼천 년 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방편으로 하셨으니까,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다 놔야 된다 하는 경도 있을 거고, 또는 계율을 아주 돈독하게 지켜라 하는 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다 알고 나면 계율을 지키라고 말을 안 해도 범하지 않으니까 지키다 안 지키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키는 게 돼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계(五戒)도 못 지켜요. 계율이라는 거에 걸려서 말이지. 나는 오계(五戒)를 설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때에 따라서 부득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살생이 아니다. 부모를 위해서, 하다못해 물고기 한 마리를 죽였다 할 때에 그것은 내 살, 내 생명, 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도리를 알라." 그랬고 해서 무조건 가서 괜히 남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 죽여서만 죽이는 게 아닌 일이 또 있죠. 남의 식구들을 몽땅 짓밟아 버리는 거, 하나 죽이면 식구가 전부 못 살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들은 전부 무의 법을 말했어요. 무의 법에서 말하고 유의 법에서 말하고 한데 합쳐서 현실로 내놓은 것이 '법화경'이예요. 또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글자 수는 적지만 편

집할 때 딱 간추려서 해놓은 거죠.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을 때에도 뜻을 잘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금강경'도 들어 있고, '법화경'도 들어 있고, '화엄경'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또 아까 '천수경' 뜻으로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를 읽었죠? 그것이 전부 설명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天)·지(地)·인(人)하고 연결돼 있으니깐요. 천·지·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대한 연화장불(蓮華藏佛)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三世)를 끌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휴! 스님,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삼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삼십, 삼백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수명이 길고 현실은 수명이 짧습니다.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되고 십만 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백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일 년도 될 수 있어요. 보통 수명이 일 년이다 하면 그것은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돼. 또 거기서 일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하루밖에 안 돼. 또 하루라 하면 여긴 한 찰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찰나도 한 찰나가 없으니까 한 찰나라는 건 아예 그냥 없는 거를 말하고, 없기 때문에 한 찰나도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피는 데 무슨 때어놓으시는데 한 찰나에 때어놓으시죠?

그래서 과거도 때어놓은 발자취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현실도 없다 하는 것은, 이 공부하는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마음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돌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세심(三世心)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라. 그래서 사천세계(四천世界)가 바로 원심(圓心)이야. 원심!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그래 그것을 다 포용하면 원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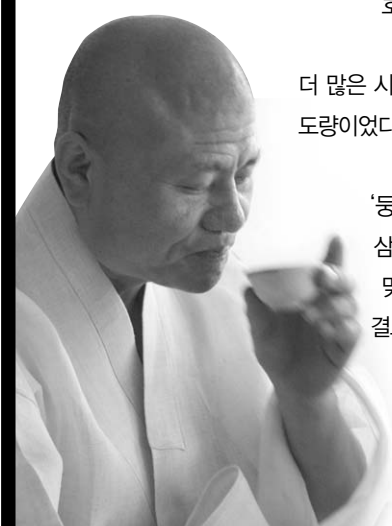
## 불교용품 및 불교서적

부산시청 · 경찰청 바로 옆  
부산불교회관 1층, 73평에  
불교용품과 불교서점등을 함께 운영할 불자님은  
꼭 한번 와 보십시오.  
기존업체인 "백광"이 성업중, 사세확장으로  
이전할 예정인 이곳은 부산 최고의 위치와  
여건을 갖춘 부산불교회관 1층 점포입니다.

자세한문의(여여선원 원주실)  
051)853-5486~7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 동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동지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는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051) 244-1251  
(02) 2198-5151